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입후보 소견서

권 경 득(權慶得)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1958년 7월 20일 생

■ 학력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미국 애크론 대학교 대학원 MPA, Ph.D.(행정학 전공)

■ 학회활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조례심사위원장, 상임이사, 연구분과위원장,
섬의홍보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20년사」 편집위원 등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위원장 등

■ 대학보직

선문대 입학홍보처장, 행정대학원 원장, 선문대 정부간관계(IGR)연구소 소장

■ 사회봉사활동

충남혁신분권연구단 단장, 상생협력갈등관리플러스충남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
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사,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상근 감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등

■ 수상경력

선문대 우수연구업적상(1999), 고주 노유희 지방자치학술상(공동수상, 2001)
한국인사행정학회 학술논문상(공동수상, 2008)

■ 논문 및 저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199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 개혁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지방정부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
구” (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분석” (2009) 등 다수

[저서]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2006, 공저), 「한일지방자치비교」 (2010, 공저),
「지방정부기능론」 (2002, 공저), 「현대인사행정론」 (2010, 공저), 「사회
과학 통계분석」 (2010, 공저) 등 다수



존경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님께

갑오년 새해, 존경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1988년 12월 창립한 이래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선배·동료회원님들의 노력과 봉사를 토대로 우리 학회는 ①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의 기여, ②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조사·연구, ③국제교류와 상호이해 증진 달성 등 창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학회 창립 30주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회 창립의 목적을 시대에 맞게 되새기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의지를 가지고 미력하나마 학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차기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에 “소통과 도약”을 슬로건으로 하여 역점을 두고 수행할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원들과 함께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과의 소통 및 참여의 촉진을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회원들과 함께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회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소통확대와 참여촉진을 위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회원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들이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명목상 회원의 수는 많으나 진성회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학회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회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회비납부, 기관회원의 확대를 통한 회비수입의 증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4대 협의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사업 수주 및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학회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학의 정립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학은 오늘날 그 지역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켜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종합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학 강좌가 지역사회의 필수적 강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학 정립과 보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촉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네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 또는 프로그램에 회원들의 재능기부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의 실천논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동네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국과의 지방자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본 지방자치학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지방자치관련 학회들과의 유대관계를 도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고,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영문학술지 발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보가 <정치외교학영역>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영향력 지수(IF)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IF 1.50). 이와 같은 학회보의 높은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학술연구의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고 회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문학회보」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학회창립 30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습니다. 2014년 학회장님과 협의하여 「(가칭) 학회창립 30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지방자치학회 30년사 발간」, 「지방자치 관련 특별 서적 발간」, 「국제학술대회 및 각종 이벤트 기획」, 「기존 학회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 등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회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는 지방자치인들의 ‘축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첫 걸음을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후보 권 경 득 올림